

# EU 집행위,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

- '23.3.17.(금), 브뤼셀 무역관/구미CIS팀 -

- EU 집행위,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(3.16)
  - (핵심원자재법)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
    -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, 원자재 확보 방안, 공급망 리스크 관리,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
  - (탄소중립산업법)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
    -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,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, 인프라 구축 방안, 절차 간소화 등
-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~2년이 소요될 전망

## 1. 핵심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

\* 추진경과: 의견수렴 절차 진행('22.9~11) → EU 집행위 법안 제안('23.3)

### □ 초안 주요 내용

- '30년까지 공급망 단계별 역내 역량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 설정
  -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%, 정제 40%, 재활용 15% 역량 보유
  - 전략원자재별 단일한 역외국 대상 의존도 65% 이하 달성
-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목록 제시
  - 핵심원자재 중 미래 수요와 현재 생산 간 격차가 큼에도 즉각적인 생산 확대가 어려운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구분
  - 선정 기준과 대상 원자재 목록을 규정하고 4년마다 업데이트 예정

**< 핵심원자재와 전략원자재의 구분 >**

| 구분   | 원자재 목록  |
|--|---|
| <b>핵심원자재</b><br>:경제적 중요도가 높고<br>공급망 위기가 임계값에<br>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                  | 안티모니, 보크사이트, 중정석, 베릴륨, 비스무트, 코발트, 점결탄, 형석, 갈륨, 게르마늄, 하프늄, 중희토류, 경희토류, 리튬, 마그네슘, 천연흑연, 니오븀, 인암, 인, 백금족, 스칸듐, 금속규소, 스트론튬, 탄탈럼, 티타늄, 텅스텐, 바나듐, 붕소, 비소, 헬륨, 구리, 망간, 장석, 니켈(배터리등급)* <b>총 34개</b><br>* 기존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8개 원자재 신규 추가<br>(기존 핵심원자재(CRM) 목록에서 붕산염, 인듐, 천연고무는 제외됨)<br>** EU는 2011년부터 역외 의존도가 높거나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를 ‘핵심원자재’로 지정 및 관리 중 |
| <b>전략원자재</b><br>:전략적 중요도가 높고,<br>미래 수요와 현재 생산 간<br>격차가 크며 즉각 생산<br>확대가 어려운 원자재 | 비스무트, 붕소(금속급), 코발트, 구리, 갈륨, 게르마늄, 리튬(배터리등급), 마그네슘메탈, 망간(배터리등급), 천연흑연(배터리등급), 니켈(배터리등급), 백금족, 영구자석용희토류(네오디뮴,프라세오디뮴,테르븀,디스프로슘,가돌리늄,사마륨,세륨), 금속규소, 티타늄, 텅스텐 <b>총 16개</b>   |

○ **역내외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**

- (선정기준) △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에 기여하며 △기술적 타당성 입증 및 △관련 ESG 책임 준수하는 역내외\* 프로젝트

\* 역내 프로젝트일 경우 최소 2개 회원국 이상에 이익이 돼야 하며, 개발 도상국인 역외국 프로젝트일 경우 EU와 해당 국가에 상호 이익이 돼야 함.

- (허가 간소화) 채굴이 포함된 전략적 프로젝트 2년 내,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 프로젝트는 1년 내 허가\*

\* 전략적 프로젝트 승인 이전 허가신청 절차가 시작된 프로젝트는 3개월 추가 단축

- (자금조달) 핵심 원자재 위원회\*를 통해 가용 자금 논의, △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 자체 상품 △국가 보조금 △EU기금 활용을 검토

\* 향후 핵심원자재법 시행 관련 집행위-회원국간 고위급 위원회로 프로젝트 검토, 모니터링 지원, 원자재 목록 개정, 국가별 진행사항 등 논의 예정

○ **역내 전략 기술 관련 대기업\*에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**

\* 직원수 50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액(net worldwide turnover) 1억 5천만 유로 초과 기업

- 녹색·디지털 전환 및 국방·우주 분야 등의 전략기술은 전략 원자재의 주요 소비처로 관련 기업은 2년마다 공급망 감사 의무

**<(참고) 전략기술 목록>**

· 에너지 저장 장치, 전기차용 배터리,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,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, 견인 모터, 히트 펌프, 데이터 전송 및 저장, 모바일 전자 기기, 적층 제조 관련 장비, 로봇 공학, 드론, 로켓 발사기, 위성 및 첨단 칩 (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 가능)

- **지속가능성 요건 강화** 통한 재활용 확대
  - (광산 폐기물) 관련 사업자 대상 폐기물 내 핵심원자재 함량, 기술적·경제적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시행
    - \* 회원국은 법안 발효 후 4년 뒤 관련 조치 채택 및 이행 필요
  - (영구자석) △포함 제품 대상 2차 원자재 회수 목표 제시, △영구자석 구성 물질·자석 위치 등 정보 공시, △탈부착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

**<(참고) 영구자석 포함 제품>**

· 자기 공명 영상장치, 풍력발전기, 전기 자동차, 일반 자동차, 에어컨, 경량 운송수단, 냉장기기, 산업용 모터, 산업용 펌프, 세탁기, 건조기, 전자레인지, 진공 청소기, 식기 세척기 등

- (기타) 회원국별 재활용 시스템 도입, 관련 제품 공공조달 기준에 2차 원자재 함량 고려
- **국별 전략원자재의 재고 수준** 보고 및 향후 비축 목표 제시 계획
  - 회원국은 전략 원자재의 재고 수준을 연간소비량 대비 백분율 및 5년간 재고 수준 변화 추이 보고
  - 집행위는 해당 정보를 핵심원자재위원회에 공유, 법안 발효 2년 뒤 역내 전략 원자재의 안전 비축 수준에 대한 초안 제출 계획
- **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** 강화
  - 향후 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제3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핵심원자재위원회가 관련 기준 검토
  - 공급 안보 기여도, 기존 양자협력, 해당 국가의 ESG 관련 규제, 글로벌게이트웨이\*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

\* '21.12월 집행위가 발표한 3천억 유로 규모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이니셔티브.

## 2. 탄소중립산업법(Net-Zero Industry Act)

\* 추진경과: EU 그린딜 산업계획 발표('23.2) → EU 집행위 법안 제안('23.3)

### □ 초안 주요 내용

- (지원대상) 생산역량 강화가 필요한 '탄소중립 전략 기술' 목록 마련
  - △태양광, △풍력, △배터리, △히트펌프·지열에너지, △수전해장치(electrolysers), △바이오메탄, △탄소포집·저장(CCS), △그리드(Grid)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
- (제조목표) '30년까지 청정기술 수요의 최소 40% 역내 생산 제안
- (공공조달) 탄소중립 기술 관련 입찰 시 제3국 생산 상품 비중 고려
  - 입찰 시 고려하게 되어있는 탄소중립 기여도는 공급안보 기여도와 환경 영향에 기반
- (구매지원) 탄소중립 산업 제품 구입에 대한 가계·소비자 지원 체계 수립 시 제3국 생산 비중이 포함된 탄소중립 기여도 고려 가능
- (허가절차) 탄소중립 회복탄력성 프로젝트 대상 관련 절차 신속화
  - 연간 용량 1GW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8개월, 1GW 미만 시 최대 12개월 내 허가 완료
  - 이어 회원국은 특정 지역을 '탄소중립 산업밸리'로 지정하고 신속한 행정, 필수 인프라 구축, 민간투자 유치, 인력 양성 등 지원 가능
- (자금조달)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 및 InvestEU, 혁신기금 등 기존 EU 기금 활용 방안 제시. 끝.